

企劃特輯 시연칼럼

# 을사오적乙巳五賊이 된 권중현權重顯의 삶과 송모정신崇慕精神



시연칼럼 권오신  
大宗會 宗報編輯委員長, 칼럼니스트

대한제국(大韓帝國) 광무(光武, 대한제국 고종의 연호) 3년(1899)에 완공된 안동 능동재사(陵洞齋舍) 추원루에 걸린 현판 '추원루'와 8개의 주련은 당대의 명필이자 문장이 뛰어났던 경농(經農) 권중현(權重顯, 1854-1934) 공(公)이 쓴 붓글씨다. 추원루 현판엔 공의 초명 '재형'이 뚜렷하게 음각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우리에겐 을사오적(乙巳五賊)으로 더 알려졌지만 경농 권중현(權重顯·사진) 공은 15개 파를 정리한 49책 150질 대동보를 9년에 걸쳐 수단하고 항렬자 체계를 세우는 등 보화(譜學)에 밝고 송모(崇慕)정신이 뛰어났던 선대(先代)이었다.

비록 친일파로 역사에 기록되긴 했지만 보화사상과 송모정신이 뛰어난 선대이었다. 자료 추적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은 시詩나 문문(韻文) 행장이 1945년 광복이후에 거의 없어져 버렸고 대강회나 종중에서 보관된 사료들만 남아 아쉬움이 무척 컸다.

### 출생과 성장

경농(經農) 권중현(權重顯) 공은 1854년(철종 5년) 충청북도 영동에서 손조(純祖) 23년(1823) 무과에 급제, 통정대부(通政大夫)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권홍섭(權弘燮, 고종 30년 71세 졸)과 정부인(貞夫人)이신 덕수이씨(德水李氏) 승권부(繼管)의 따님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종장공(莊莊公 諱 棟)의 10대손이 된다.

호는 경농(經農), 자는 치옥(致玉), 초명은 재형(在衡)이었다.

사서오경(四書五經)을 통째로 외워 버리는 등 일찍(少年期)부터 학문에 뛰어나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갖춘 청년으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어학실력이 뛰어나 일본어를 스스로 깨치면서 친일 개화 관료의 길을 걷게 된다.

1883년 동래감리서 서기관 발령 받던

만에 일본주재 서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1891년 인천항 통상사무를 맡는 등 벼슬길에 순조롭게 열려 승차엔 경농(經農)을 따를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움직이로 출사한 첫 관직이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 참판(參判)이었으며 일 년이 안 되어서 찬정대신(贊政大臣, 조선말 의정부의 으뜸벼슬)에 오를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고종(高宗) 28년(1891) 37살 때 일본 사행 길에 올랐던 것이 개화파에서 친일(親日) 개화파가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 일본말에 능통했던 그로서는 일본 관리들과 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신학문을 받아들이는데도 남들보다 빨랐다.

한성부윤(漢城府尹)과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을 지냈다. 1899년 40대 중반 나이에 법무대신(法部大臣)에 올라 각각에 입성했으며 육군군무학교장과 육군 법원장을 겸직, 조선의 고위 관료가 경농(經農) 선대에게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1904년 고종황제로부터 대한제국 육군부장(陸軍副將)으로 임명된 그해에 러일 전쟁이 터져 일본군 위문사(慰問使)로 파견되는 등 일본의 승리에 힘을 보탠 공로로 일본정부로부터 1등 훈장을 받았다. 이 시기 철도원 총재 서리가 지 격직하게 된다.

경농(經農)은 1905년 농상공대신에 오르면서 을사오적이 되고 암살단의 표적이 됐다.

일본과의 합병(合併)에 적극적이었던 그는 1907년 나철(羅喆 1863-1916, 29살 때 문과급제, 대종교 교주 독립운동가)로 일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순교의 길을 택했다. 49세)과 강일상(姜榮 諱 相, 1907년 옹희 1년 을사오적을 암살하기로 뜻을 모으고 권중현을 저격하려다 체포됐다. 혀를 깨물어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가 나인영, 전덕준과 함께 지도(智島)로 유배됐음)이 이끄는 암살단의 표적이 되어서 평생을 죽음의 공포에서 초명은 재형(在衡)이었다.

이후로도 의병집단 명령을 내리는 등 대한제국 의병들을 탄압했다.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된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准1등)작위와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아서 감부가 됐으나 경륜이 절정에 이르렀던 50대 후반에 대신(大臣) 자리를 일본정부에 넘기고 중



의원 의관 같은 보잘 것 없는 명예직에 앉게 된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 고문과 조선사편수위원회(朝鮮史編修委員會) 고문을 지내면서 민족사(民族史)를 지우는 데 자신의 지식을 보태게 되지만 그 때부터 고민흔적이 삶 곳곳에서 비친다.

2002년에 발표된 친일파 708인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親日人名辭典)에 수록 됐다.

### 정미보丁未譜 발행 9년이 걸렸다

1907년 49권 150질이나 되는 정미보(丁未譜)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9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으며 9만권이던 엄청난 예산이 들었다.

경농의 정치적 인생행로는 친일파의 우두머리였지만 안동권문엔 항렬을 정하고 9년이 걸린 정미보 편찬을 이끄신 선대(先代)다.

고종 40년(1903) 대한제국은 큰 혼란기였다.

대한제국 군부대신(軍部大臣)에다 철도원 총재 서리 등 여러 직책을 겸직했던 시기이었지만 안동권문의 친년역사에 영원히 빛날 정미보 편찬이 시작되었던 해다.

그 때까지 종파별로 혼돈스럽게 사용됐던 항렬자(行列字)를 31세에서 60세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100만 족친이 쓰고 있는 지금의 항렬자다.

광무(光武, 대한제국 고종의 연호) 7년(1903) 안동권씨경중대종중보소(安東權氏宗中大宗中譜所)를 서울과 안동으로 나누어서 설치하고 족보 발행을 위한 수단(收單, 족보에 올릴 전국 문중별 가계별 사람의 이름을 수집함)에 들어갔다. 수단 작업이 중단되는 등 몇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예산 9만권이 들어간 49책 150질의 대동보(大同譜)가 9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됐다.

이 대동보는 지금 15개 파 또는 중중별로 쓰는 족보는 모두 정미보의 바탕에서 시작된다.

성화보에서 시작된 독특한 보화 정

신과 가세(家世)를 근대문명으로 편찬하는 등 15파의 정립을 이끄신 조선(祖先)으로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 또 31세에서 60세까지 항렬자를 쓴 최고의 족보다. 그 해 3월 3일 항렬자를 전국 문중에 보내어서 사용토록 했다.

좌윤공파(佐尹公派)를 비롯 급사중공파(給事中公派), 동정공파(同正公派)도 정미보부터 수록이 됐다. 신축년(辛丑)년 대보 때 검교공파(檢校公派)가 임록 됨으로써 드디어 15파가 선계별로 최종 정리, 완성본이 나오게 된 것이다.

농상공대신 권중현(權重顯) 선대(先代)와 한성판윤(漢城判尹)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군무총장(軍務總長)을 지낸 죽농공(竹農公) 권중석(權重奭, 죽농공과 32세)공이 힘을 보태지 않았으면 정미보는 세상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정미보 편찬과 발간 실무 작업을 이끌었던 군무총장(軍務總長) 죽농공(竹農公, 諱 權重奭)은 권두언(卷頭言, 책머리에 쓰인 글)을 통해 이렇게 썼다.

「이 족보의 이루어짐은 실로 중현(重顯) 형의 주찬(主贊, 주인의 입장에서 도왔다) 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렵고 배움이 보잘 것 없으나 존종(敦宗, 일가 사이의 화목)을 하는 정의로써 힘을 기울여 외람되지 족보를 편수할 의론을 창도(唱導, 앞장서 이끌어 나갈)하고 경영한 것은 여러 종족들이 성의와 힘을 다하여 도와주신에 힘입음인 바 그 끝을 완전히 이루게 되었으니 모두의 다행함이 돌아 보건대 그 어떠한가.

이 족보에 비록 유무(遺漏)의 유감스러움이 없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나 더욱 화수(花叢)의 정리가 강구되고 이로써 친친의(親親之義,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는 사이)가 확대되어 바라건대 풍화(風化)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여기는 바, 이에 이같이 쓰는 바이다.」라고 적었다.

(영가인행록永嘉言行錄에서 발췌) <다음 호에도 계속 됩니다.>

## 부산종친회 등산회 함양 사과축제



남계서원



남계서원

부산종친회 등산회(회장 권중현)에서는 지난 10월 26일(토) 경남 함양군 수동면 사과축제 참가 및 함양 일원에 대한 나들이에 나섰다. 이날 나들이에는 성용 부산종친회장, 영호 명예회장, 김상 고문 등 원로와 종친회 부회장 및 등산 회원 등 모두 40여 명이 함께하였다.

11시 사과축제 개막식에 맞추어 도복마을에 도착하니 산골 축제 치고는 벌려 놓은 판이 제법 거창하였다. 특히 수동사과축제추진위원장 권중재 씨가 일족이라 우리를 반갑게 극진히 맞아 주었다. 개회식 의례가 끝나고 풍선 날리기로 흥을 돋운 다음 사과 직판을 비롯해 사과 시식회, 사과 수확 체험, 사과 경매, 껌질 길게 끼기, 사과 빨리 먹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 장터가 흥미와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그 가운데 인근 사과밭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사과열차는 인기 만점이었다. 수레 2대를 경운기에 연결하여 사과밭과 인근 풍치를 구경하도록 만든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올해 6회째인 이 축제는 특산물 축제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이곳 사과는 1972년경부터 도복, 내백, 효리를 중심으로 심기 시작해, 지금은 126농가에서 200ha 가량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김상전 부산종친회장의 고향 마을로, 이번 축제 참관도 김상 고문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축제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과 한, 두 상자씩을 구입한 일행은 함양 관광에 나섰다. 선비의 고장이라 먼저 남계서원부터 찾았다. 이 서원은 지역 유럽에서 일두(문헌공) 정여

창 선생을 기리기 위해 명종 7년(1552년)에 건립하였다. 일두 선생은 김광필, 이황, 이언적, 조광조와 더불어 조선조 5현으로 칭송 받는 분이다. 이 서원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졌고 사액(賜額)서원으로 사적 제 499호이며,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에도 포함되었다. 지척에는 탁영 김일손 선생을 모신 창계서원이 서있다.

다음 행선지는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숲 함양삼림이다. 200,000㎡가 넘는 면적에 소나무·측백나무·노간주나무 같은 겉씨식물을 비롯한 수많은 수종이 나뭇잎의 종류나 나이에 따라 층을 이루고[林面] 있다. 신라 진성여왕 때 함양태수였던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조성하였다고 전한다. 당시 위천은 함양읍의 중심을 흘러 매년 홍수의 피해가 반복되자, 강물을 지금의 위치로 돌리는 독을 쌓고 그 독을 따라 나무를 제방 보호수로 심어 숲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그 뒤 대홍수로 독의 중간이 무너져 내려 지금의 상림과 하림으로 나뉘어졌다고 한다.

삼림공원 앞에는 2020년 함양산삼엑스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드넓은 주차장과 함께 산삼주제품, 향노화관, 유통센터 등을 비롯한 커다란 건물 여러 개가 세워져 있다. 그 넓은 주차장 한쪽에 자리를 깔고 준비해 간 음식으로 우의와 친목을 다지며, 갈 때 차내에서 증원 자원위원과 영현 부회장에서 배운 함양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겨 보는 보람찬 시간을 가졌다. <부산종친회 권재영 사무국장>

##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제 300차 정기산행

안동권씨 서울산악회(회장 권중현)는 제 300차 정기산행으로 서산 팔봉산에 올랐다. 권중현 회장, 권오준 등반대장, 권순휘 총무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제 300차 정기산행을 지켰다.

서울산악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인근의 산과 전국의 명성 있는 산 등을 등반하며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월 등반을 해왔다.

권중현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일치단결하여 서울산악회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세무법인 확인

대표세무사: 권혁창(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

#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